



우아하고 조화로운 문양, 청록색의 빛깔, 그리고 정교하게 조각된 디자인

한국의 유명한 예술작품들 중에는 예술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고려시대(981~1392년)의 작품들이 많다. 불화, 유기(鑪器), 나전칠기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예술작품은 디자인과 기술이 섬세할 뿐만 아니라 화려한 문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고려청자를 꼽을 수 있다.

청자를 뜻하는 'celadon'은 유럽에서 유래된 단어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만들어진 청록색 빛깔을 띠는 도자기를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청자는 고려의 역사와 함께 출발하여 전성기를 누리고 조선 초까지 그 전통이 맥이 이어지다 차츰 쇠퇴하였다.

12세기에 절정기를 누렸던 고려청자는 본래 중국 도자기 기술의 영향을 받았지만 고려의 도공들이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면서 중국 도자기의 모방이 아닌 한국만의 멋을 지닌 도자기로 재탄생하게 된다. 고려청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아하고 조화로운 문양, 청록색의 빛깔, 그리고 정교하게 조각된 디자인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고려청자의 절정기에 만들어진 '청자운학문매병'을 꼽을 수 있다.



청자운학문매병

12세기 중기~말기, 고려시대. 높이: 30.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번호: 덕수 2182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자운학문매병'은 작은 병 입구에서 밑 부분까지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구름 속을 비상하는 학을 배열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고 고려청자 특유의 빛깔을 뽐내고 있다.

청자의 우아함과 멋을 표현한 상감기법

상감기법은 12세기에 고려청자를 만드는데 널리 사용하던 중요한 제작 기법이다. 상감기법은 본래 공예 여러분야에 사용되었으나 고려의 도공들이 크게 발전시켜 독특한 경지를 이루면서 고려시대에 청자의 우아함과 멋을 표현하였다. 이 기법은 12세기 이전 사용했던 유기(鑪器), 나전칠기 제작방법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감기법은 태토에 문양을 새긴 후 그 선이나 면에 다른 색의 흙물을 발라 흙을 메우고 다시 다듬어 낸 후 유약을 바르고 낮은 온도에서 초벌구이를 한다. 그런 후 유약을 바르고 약 1200°C

이상의 높은 고열에서 한 번 더 굽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검정 또는 하얀 점토액과 유약은 서로 반응하여 청자의 빛깔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 준다.

상감기법은 11세기에 개발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사용하던 시기는 12세기 중반인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의 도공들은 상감기법을 익혀 청자를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매끄러운 표면과 깊은 옥색문양이 특징인 '비색청자'를 보면 고려청자의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다. 고려 도공들이 사용했던 유약은 도자기의 색감을 명료하게 하고 광택이 뛰어나도록 해주기 때문에 상감기법과 매우 잘 어울렸다. 초기 상감기법은 '청자상감국화절지문병'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연주의적이고 비교적 간단한 문양을 사용한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



청자상감국화절지문병
12세기 중기, 고려시대. 높이: 36.1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번호: 신수 13561

도자기의 허리부분에는 이 당시에 유행했던 국화문양을 상감기법으로 새겨 넣었다. 가늘게 뺀 긴 목 부분과 얇게 새겨진 꽃 문양 그리고 불투명한 빛깔은 12세기 중반에 유행하던 방식이다. 12세기 후반부터 13세기까지는 꽃 문양, 학, 구름과 같은 문양들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 이것은 현재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청자 국화 무늬 조롱박 모양 작은 병'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청자국화문표형병
13세기, 고려시대. 높이: 11.4cm

가운데 있는 문양은 만개한 국화이며 그 주위에는 역 상감기법으로 일정하게 소용돌이 문양이 새겨져 있다. 역 상감기법이란 상감기법과는 달리 표현하고자 하는 무늬 주위에 상감기법을 사용하여 점토액을 입히는 방법이다.

점점 세련되고 다양한 모양의 고려청자, 아름다움이 깊어진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려청자의 형태 또한 점점 세련되어지고 다양해졌는데, 이는 고려청자의 전형적인 특징인 유려함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세기중반에서 13세기까지 만들어진 고려청자는 사람의 신체나, 동물 그리고 식물을 본떠서 만든 것이 대부분이다.



청자귀형주자

12세기, 고려시대. 높이: 14.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번호: 신수 1251

‘청자귀형주자’의 경우 윗부분은 용의 머리를, 그리고 아랫부분은 거북이의 몸통을 빗대어 만들었다. 거북이의 팔각형 껍질 문양에 한자로 ‘왕(王)’을 새긴 것으로 보아 이 물병은 당시 고려의 수도인 개성의 궁궐에서 사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얇게 들어간 흙에 유약을 펴 발라 청자의 아름다움은 깊어지고 조각의 아름다움이 살아나며 외관은 부드럽고 섬세해 졌다. 가장 섬세하고 유려한 청자로는 사자가 향로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구현한 ‘청자사자장식향로’를 꼽을 수 있다.



청자사자장식향로

12세기, 고려시대. 높이: 21.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번호: 국보 60호

향로에서 발생하는 연기는 사자의 몸통을 지나 입을 통해 공중으로 퍼지면서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한다. '청자 사자 장식 향로'는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고려 도공들은 산화구리를 사용하여 적동빛을 띠는 유약기술을 개발할 만큼 도자기 재료 활용능력이 탁월했다. 산화구리는 모든 금속물질 중에서 가장 다루기 어렵다. 그 이유는 도자기를 구울 때 녹색 혹은 녹갈색으로 변할 수 있고, 불과 만났을 때 튀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방법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작품이 바로 '청자포도문표형주전자와 받침'이다.



청자포도문표형주전자와 받침
12세기 고려시대, 높이: 36.1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번호: 덕수 19

이 작품은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상감기법으로 새긴 포도문양이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다.

섬세하고 화려한 고려청자에서 강인하고 역동적인 조선시대 도자기로

고려청자는 13세기 몽골의 침략(1231년)과 함께 제작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추측되지만 강화도로 천도한 이후에도 왕실은 고급 청자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개경한도 이후, 기형과 문양의 조형에 새로운 요소가 나타난다. 그러나 고려왕조의 쇠퇴와 함께 청자도 제작과 공급에 변화가 생겼을 것으로 본다.

조선 건국과 함께 왕실은 전국에 공납품으로 도자기를 거두면서 청자의 뒤를 이은 분청사기가 한동안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15세기 세종시기 왕실용 자기와 백자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표현기법은 더욱 단순화, 정형화되었으며 제작 솜씨는 투박해졌다. 아름다움에 대한 시각도 이전과 달라졌다. 고려청자가 섬세하고 화려한 아름다움을 갖춘 반면, 조선시대의 도자기는 분청사기와 백자에서 알 수 있듯이 강인함과 역동성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p>기고 샬럿 홀릭(Charlotte Horlyck)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학부(SOAS) 미술사 및 고고학부 고고 미술사학과 부교수</p>
	<p>샬럿 홀릭(Charlotte Horlyck) http://www.soas.ac.uk/staff/staff31131.p</p>



hp

※ 기고자의 직함은 기고일 기준입니다.

※ 상위 이미지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자 동의없이 사용이 불가합니다.

Page 01

[목록보기](#)

최초등록일 2010.12.30, 최종수정일 2011.11.25

이전글 서예는 학문이면서 예술 _ 한태상 한국국제서법연맹공동회장

다음글 판소리 흥보가 예능보유자 박송희 명창의 삶과 예술 _ 채수정